

김승연 회장 경찰 출두... 뭘 수사하나

청계산 납치 폭행 가담 여부가 핵심

납치죄 추가면 처벌 수위 높아져... 조폭 동원 등도 밝혀야

아들을 위해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김 회장이 과연 청계산 납치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김 회장이 청계산 납치 폭행을 직접 지휘했다면 이번 일은 단순 폭행 차원을 벗어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폭력 지시 및 직접 폭행 여부 ▲폭행시 도구 사용 여부 ▲폭력배 동원 여부 등이 진위를 밝혀내야 할 핵심 수사 과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날 밤' 청계산에 직접 갔나=청담동 G주점-청계산-북창동 S클럽 등으로 이어지는 3곳의 보복폭행 현장 가운데 청계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와 가장 심하게 얻어맞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김 회장의 동행 여부 확인이 중요

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간 청담동, 북창동과는 달리 청계산에서는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뒤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향후 법정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나=청계산 폭행은 물론 청담동과 북창동 부점에서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청계산에서) 김 회장이 '아들의 눈을 때렸으니 눈을 맞아라'며 내 눈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날 오후 남대문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개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하지만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이 직접 때렸나=청계산 폭행은 물론 청담동과 북창동 부점에서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S클럽의 한 종업원은 경찰에서 "김 회장에게서 직접 폭행을 당했고 다른 동료들이 맞는 장면도 봤다"고 진술했으며 비슷한 목격담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흥기 휘두른 적 있나=피해자와 목격자 사이에서 김 회장 일행이 권총, 화강, 전기충격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만약 김 회장이 이와 같은 흥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역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기 소지 및 사용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조폭까지 동원했나=이번 보복 폭행 사건에 조폭폭력배가 동원된 적이 있는지도 경찰이 김 회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인 사안 중 하나다.

김 회장 측은 차남과 경호원, 비서실 직원, 경비 운영업체 직원 등만 현장에 데려갔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 측에서는 '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회유·협박 있었나=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대질 신문을 꺼린다는 점 등에서 김 회장 측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 회장이 직접 뺨을 때렸다'고 말한 S클럽 사장이 경찰에서 '김 회장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도 회유나 협박의 영향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복 폭행 사건 일지

- ▲3월 8일 새벽 5~6시=김승연 회장 둘째아들, 서울 청담동 G 클럽서 Y씨 등과 시비발어 부상.
- ▲3월 8일 저녁=김 회장 측 경호원 등 청담동과 청계산, 북창동 S클럽 등지에서 Y씨 등 집단폭행.
- ▲3월 9일 새벽 0시 7분경=112 신고 접수.
- ▲3월 20일경=서울경찰청 광

- 역수사대 관련 첩보입수.
- ▲4월 25일=남대문서, 수사 상황 일부 공개. 김 회장 둘째 아들 중구 출국.
- ▲4월 27일=수사팀 확대 전 면수사 착수. 김 회장 출국요청.
- ▲4월 28일=김회장, 2차례 경찰 출석요구 불응.
- ▲4월 29일 오후 4시=김회장, 남대문 경찰서 출두.
- ▲4월 30일=중간 수사결과 발표 예정

3평 공간...진술 장면·내용 모두 녹화

'사상 초유' 재벌 총수 경찰 조사 현장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재벌총수가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 총수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일이지만 일선 경찰서에 직접 나와 조사 받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김 회장이 조사를 받은 곳은 남대문경찰서 1층 폭력계 안에 있는 진술녹화실로, 김 회장은 8평 가량의 진술녹화실의 내부 방 3곳 중 1곳에 앉아 수사관의 질문에 답했다. /연합뉴스

조사를 받은 방은 3평을 조금 넘는 곳으로 유리창 없이 4면이 막혀있다. 이곳에는 김회장과 김 회장측 변호인 1명, 조사관 3명이 입실했다. 경찰은 수사관으로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담당 팀장 외에도 '불공정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직속 광역수사대의 수사관을 참석시켰다.

진술녹화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는 '주취자 안정실'과 바로 붙어있는데, 김 회장은 안정실 내부에 설치된 남녀 공용 간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보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이 29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직선적 성격에 끔찍한 자식사랑이 원인

■김회장 왜 직접 나섰다

'보복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결국 경찰에 출두하게 된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은 왜 직접 아들의 사소한 폭행사건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일까.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성격과 각별한 가족애에서 원인을 찾는 분위기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직선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김 회장은 1981년 29살에 한화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경영으로 그룹의 자산규모를 취임 당시에 비교해 20배 이상 키워냈다.

또 남자다운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학생 때부터 복싱을 좋아해 1982년부터 15년간 대한아마추어복싱 연맹 회장을 맡는 등 복싱 애호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이 "술집에서 다른 일행에게 맞았으니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철없는 소리하지 마라. 남자답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직접 가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그의 직선적인 성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가 세 아들을 각별히 아끼는 끔찍한 가족 사랑으로 유명하다는 것도 한 원인이라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아들들이 예일대를 비롯해 미국의 명문대에 다니고 운동선수로 인정을 받아 온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고 한다.

고교 재학중이던 16살에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오랫동안 의로운 생활을 했던 그가 회장에 취임한 뒤 누나와 동생과 그룹 경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특히 아들들에게 집착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주먹으로 사적인 보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벌 총수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네티즌들이 느끼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900세대 중부세 대상

6억원 초과주택 17가구...전국선 30만 가구 대상

29일 발표된 올해 전국 주택가격 공시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이 3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중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71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5만8천183가구보다 무려 90%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7만4천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99.8%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이 총 17가구에 그쳐 수도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광

주·전남은 세대별로 합산할 경우 1천900세대가 중부세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올해 중부세 대상이 총 1천100명으로 지난해(800명)보다 300명(38%) 가량 늘 전망이다. 전남도 지난해보다 300여명 늘어난 800여명이 중부세 대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전국(38만1천명)의 0.5% 수준으로 광주·전남 지역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나타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가장 비싼 집은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의 자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평가받았다. 이 회장의 자택은 우리나라 주택 1천 308만가구를 통틀어 공시가격이 가장 비쌌다.

이 주택의 실거래가는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서 두번째로 비싼 주택은 서울 동작구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주

광주, 금남로 금호재단 소유 주택 전남, 목포 유달동 이훈동씨 자택

택으로 86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광주에서 최고가 주택은 동구 금남로 5가의 금호문화재단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9억1천200만원이었으며, 반면 광주에서 제일 싼 주택은 동구 동명동의 주택으로 259만원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목포시 유달동의 이훈동씨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8억5천만원이었다. 공동주택 중 전국 최저가는 고흥군 도암면의 다세대 주택 5평형으로 공시가격은 14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Sold exclusively in Louis Vuitton stores. Tel. 02 3432 1854 www.louisvuitton.com

LOUIS VUITTON